



회원 여러분,
사단법인 공공도서관협의회 회장 이정수입니다.

우리 공공도서관협의회는 1968년에 창립되어
공공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.

그간 국가도서관인 국립중앙도서관이 회장기관을
수행하면서 취약한 공공도서관 환경을 개선하고
시민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꾀하는데 큰 역할을 해주셨습니다.



덕분에 이제는 공공도서관이 회장기관이 되어도 협의회 운영에 무리가 없
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, 2021년부터 서울의 대표도서관인 서울도서관이
회장기관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 공공도서관이 협의회 발전을 위
하여 더욱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.

우리 협의회는 공공도서관의 발전과 협력의 구심점이고, 도서관인들의 네
트워크입니다. 전국 17개 지부 도서관을 비롯하여 현장의 공공도서관이 더
많이 소통하고, 지역에서 더 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도
록 노력하겠습니다.

코로나 19 환경으로 협의회가 예정하고 있는 협력 워크숍, 해외 선진도서
관 연수 등의 사업 추진에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, 현장 연구지원
및 지부도서관 중심의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합니다. 독서기관
을 넘어 시민 삶의 문제해결을 위한 장으로서의 공공도서관, 지역사회와
호흡하는 공공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도서관인의 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도
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협의회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.

고맙습니다.